

2015년 12월

Paraguay

고현목 변성희 선교사 선교소식



Ko, Hyon-Mook P.O.Box 2910, Asunción-Paraguay / E-mail : pablokopy@gmail.com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동역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에도 파라과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이 복된 일에 기도와 물질로 변함없이 협력해 주신 사랑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연말에 각 분야들에서 어두운 전망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더욱 주님 오실 그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둡고 불안한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곧 다가올 2016년 새해에도 동역자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에, 그리고 협력하시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지난 하반기 동안 주의 크신 은혜로 진행된 여러 사역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 토레푸에르테 교회 창립 17주년 기념 예배 ▣

18년 전 선교사로 파송되어 다시 돌아와 세웠던 첫 교회인 토레푸에르테 교회가 지난 8월 23일에 창립 17 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개척과 성장을 거쳐 독립을 한 다른 몇 교회들이 있지만, 토레푸에르테 교회는 지금도 사역의 여러 차원에서 긴밀한 동역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너무나도 고마운 교회입니다.

더구나 전도와 양육을 거쳐 마침내 목사로 안수를 한, 그래서 저의 영적인 아들을 자처하는 미겔 목사님이 제 뒤를 이은 세 번째 담임목사로 충실히 사역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창립 기념일에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고 났을 때 교회가 마음의 선물로 준비한 감사패를 전달받았습니다. 비록 저희 내외가 받았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것이 저희만의 것이겠습니까? 저희는 다만 이 모든 사역이라는 커다란 빙산에서 겉으로 드러난 일각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그 기저에는 지난 세월동안 보이지 않은 영역에서 변함없이 함께 해 오신 교회들과 동역자님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가 받은 감사패는 그런“우리 모두”에 대한 감사와 찬사였습니다.



◆ 내년 2월 중순에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

지역사회에서의 문맹퇴치와 전도를 위한 성경공부 센터를 계획하며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매년 한 두 개의 교실을 건축해서 수년 후에는 전체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교육선교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비전이 되어서 이를 위해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그 비전의 첫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한국의 김신자 권사님의 헌금으로 두 개의 교실을 건축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김 권사님은 저희가 한 번도 직접 뵈던 일이 없는, 알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전을 위한 귀한 사역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을 하셨고, 그 결과로 까뻘아따 지역에 파라과이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일의 시작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파라과이 교육부에서 초등과정 3학년까지 학생을 받을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오는 1월 중순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서, 내년 2월에 각 급 학교들의 개학에 맞춰서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을 맞이하려는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남은 비용과 모든 일정의 순적인 진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를 시작하기 위해 현재 토레 푸에르테 교회에서는 미겔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있는 교인들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전체 운영의 계획과 진행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 1)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각별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또한
- 2) 내년에도 주의 은혜의 공급으로 또 다른 교실 2개가 신축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Altar Familiar(으빠네 쎌뜨로 지역) 교회 소식** ▣

◆ **로메로 목사님** ◆ 으빠네 쎌뜨로 지역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시작한 “알따르 파밀리아르 교회”는 로메로 목사님을 통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메로 목사님을 볼 때마다 좋은 인도자를 만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양육과 관리를 받았더라면 그의 남다른 열정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좋은 사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싶은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라도 자신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재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서 배우는 로메로 목사님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로메로 목사님에 대한 양육과 지도는 신학수업을 위해 매 주 토요일 오후 현지 교단 신학교의 연장교육과정을 통해 신학 수업을 하도록 하고, 그와 별도로 토요일 오전, 저와 개인 성경공부를 하며 말씀에 대한 이해와 사역을 체크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총 3년의 신학연장교육과정 중 2년째를 마치는 수료식이 지난 11월 25일에 있었습니다. 로메로 목사님이 좋은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배실 장의자 마련** ◆ 알따르 파밀리아르 교회에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각자 의자를 갖고 와서 예배를 했었고 지난 7월 헌당감사에배 때에는 행사용 의자를 대여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부 총무님의 배려로 교단 “전여회”에서 발행하는 “성광지”에 실린 지난 5월의 소식을 접하고 필요를 공감하신 “조정희 성도”께서 필요한 비용을 헌금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Altar Familiar 교회에는 예배용 의자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형편을 세밀히 살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현지교회의 필요에 공감하시고 협력하신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주 이어지는 심한 비바람으로 한풀 꺾인 더위 대신에 심심치 않게 전기와 수도가 끊기는 불편을 겪으며 이 해의 마지막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는 없는 가 봅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주의 은혜가 동역자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이 해의 마지막 소식지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고현목 변성희 선교사 올림

- ◆ **기도제목**
1. 토레푸에르테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미겔 목사님과 교우들을 위해)
 2. 2월 개교 예정인 학교를 통해 미래의 인재들이 배출되도록 / 교회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3. 로메로 목사님의 영성과 알따르 파밀리아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4. 12월 20일, 알따르 파밀리아 교회의 침례식을 위해서 (대상자 11명의 신앙성장을 위해서)